

2010년 6월 28일

학부모/보호자님 귀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올 가을, 새 학년도를 시작하는 첫날은 2010년 9월 8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주간, 저희는 학부모님들과 일선 학교들로부터 새 학년도가 시작되는 첫 주에 노동절과 유대명절이 겹치게 되어 학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염려 섞인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은 새 학기 첫 날을 2010년 9월 13일 월요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업일수가 감소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저희에게 제안을 해 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2010년 9월 8일 수요일을 교직원 연수일로 지정하고, 대신 교직원 연수일로 지정된 2011년 6월 9일 목요일 브루클린-퀸즈 데이를 정상수업일로 대체하자는 대안을 내 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시장님과 저는 매우 타당하다 생각하였으며, 내년 6월 하루 휴교하는 날을 줄여 학부모님들께서 주중에 아이를 맡길 곳을 찾는 어려움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미교사연맹(UFT)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불행히도 UFT에서는 이러한 제안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저희는 기존의 계획대로 학사일정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지면을 통해 UFT가 언론에 발표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자면, 새 학기 시작일을 각 학교의 재량에 맡기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은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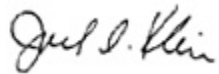
각 학교가 각기 다른 날짜에 새 학기를 시작할 경우, 스쿨버스 운행 스케줄은 물론 점심급식까지 모두 다른 일정으로 진행되어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것은 학부모님들께도 혼란스러움은 물론 교육청 예산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일년 학사일정에도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저희는 학교 개학 첫 주에 여러 가정에서 겪게 될 혼란과 스트레스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조하는 바이며, 모두에게 편리하고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학사일정상의 변화를 실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UFT과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실패하였기에 기존 계획대로 2010년 9월 8일 수요일에 새 학년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가정에서 즐겁고 편안한 여름방학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가을에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oel I. Klein
뉴욕시 교육감